

-았/었더니

~했더니 (그랬더니)

-더니와 짝을 이루는 표현 중 1인칭 쪽입니다. 내가 무언가를 했고, 그 결과 알게 된 것이나 일어난 일이 뒤에 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았더니	가다 → 갔더니
그 밖의 모음	-었더니	먹다 → 먹었더니
하다 동사	했더니	공부했더니
발견	어떤 상황을 알게 됨	갔더니 문을 닫았어요
결과	어떤 결과가 생김	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
주어	나 자신	동생이 갔더니(×)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았/었-규칙을 따릅니다: 갔더니, 먹었더니, 했더니.
앞 절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고, 뒤 절은 그 결과나 알게 된 사실입니다: 가게에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.
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발견: 무언가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결과: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뜻이며, 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: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.
주어가 나 자신이므로,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.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생이 갔더니는 틀립니다.

■ 예문

- 1 가게에 갔더니 벌써 문을 닫았어요.
- 2 아침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.
- 3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.
- 4 어제 늦게 잤더니 오늘 너무 피곤해요.
- 5 직접 만들었더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
- 6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.

■ 비교

-더니
두 표현은 주어로 나뉩니다.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일에는 -더니를, 자신이 한 일에는 -았/었더니를 씁니다.
동생이 공부하더니 합격했어요. / 제가 공부했더니 합격했어요.

-(으)니까
-(으)니까도 무언가를 해 보고 알게 된 것을 나타낼 수 있어 두 표현이 겹칩니다. -았/었더니의 자신의 과거 행동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.
가 보니까 문을 닫았어요. /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.

-아서/어서
-아서는 원인을 담담하게 말하고, -았/었더니의 내가 한 일과 그 뒤에 관찰한 결과로 표현합니다.
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. (많이 먹었기 때문에) /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. (많이 먹었더니 이제)

■ 주의

- × 동생이 가게에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.
○ 동생이 가게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.
-았/었더니의 자신의 행동을 전합니다.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면 -는데와 간접 화법 어미를 쓰세요.
- × 가게에 가더니 문을 닫았어요. — 자신에 대해 말할 때 (×)
○ 가게에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.
과거 표지가 없으면 이 어미는 내가 관찰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리킵니다.
- × 공부하였더니 합격했어요.
○ 공부했더니 합격했어요.
하다는 일반 과거형과 똑같이 여기셔도 됩니다.